

김장김치에 따뜻한 정이 듬뿍~

대성에너지, 김장나눔 봉사 쪽방주민 800여세대에 전달

2015년 11월 17일 [경안일보]



© 경안일보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강석기)는 17일 대구 중구 명덕로 본사 주차장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전체 쪽방주민 800여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강석기)는 17일 대구 중구 명덕로 본사 주차장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전체 쪽방주민 800여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7년째 대구쪽방상당소와 함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성에너지 임직원들은 굵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앞치마와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채 양념과 절임배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김장을 담그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조금은 서투른 솜씨지만 양념을 배춧잎 사이사이에 버무린 뒤 겉잎으로 감싸고 정성스럽게 락 앤락 용기에 차곡차곡 담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일사천리로 호흡을 맞추며 각자의 맡은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했다.

시종일관 웃음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김장김치를 쪽방거주민들에게 따뜻한 정과 함께 직접 전달하며 마무리했다.

강석기 대표이사는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김치가 쪽방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겨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온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